



Energy Tracker – H129

심상치 않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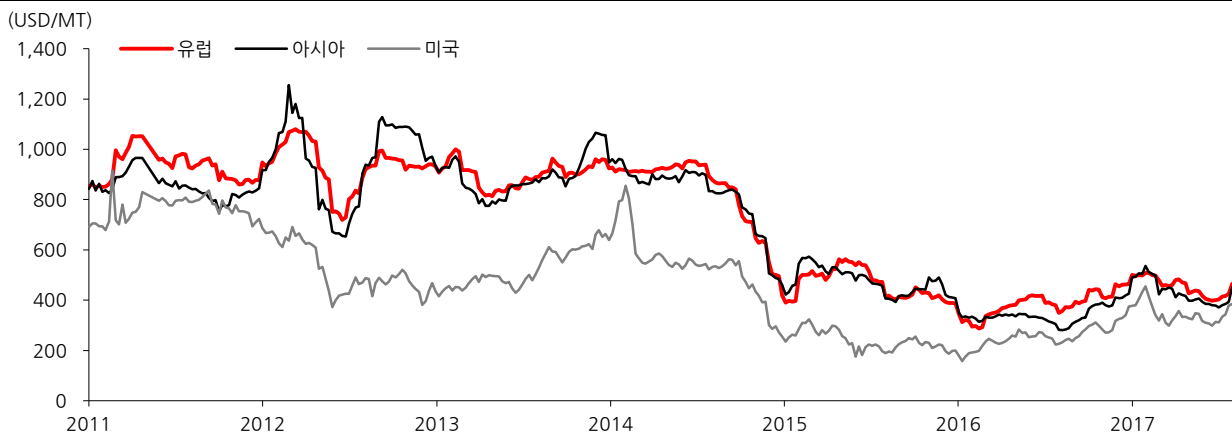
Analyst 박영훈 houn0715@hanwha.com 3772-7614/ RA 최선미 serena.choi@hanwha.com

여름에 지속된 전 세계적 프로판 강세

프로판 수출국 상위 5개국의 합산 수출량은 2010년 1628만톤에서 2016년 3655만톤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는데, 증분의 99.3%는 미국 물량이다. 한 때 1위였던 사우디는 화학업체의 내수 소비 증가로 수출 여력이 절대적으로 감소했다. 프로판 수출국 상위 2~5위의 합산 수출량이 미국 수출량의 절반 수준이니, 미국의 프로판 수급 상황이 전 세계 프로판 시장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프로판 생산이 많은 미국의 최근 프로판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70.7% 상승했다. 여름임에도 말이다.

유럽과 아시아 프로판 가격 역시 YoY 각각 32.8%, 60.0% 상승했다. 톤당 460달러 수준으로 납사 가격과 같은 수준이다. 이러니 NCC입장에서는 프로판 투입의 경제성이 없기에 거의 대부분 납사만을 투입하고 있을 것이다. 개솔린 수요가 많은 드라이빙 시즌에 프로판을 쓸 수 없었던 NCC입장에서는 가슴 졸이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던 여름이 아닐까 싶다. 납사 투입만 가능한 상황에서 납사 강세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 다행히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제 드라이빙 시즌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납사 강세에 대한 걱정은 조만간 잊어도 좋을 것이다. 프로판이 야 항상 날 추워지면 가격 강세로 투입할 수 없으니 겨울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올 겨울 PDH업체들은 가슴 졸여야 할 것이다. 프로판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재고가 전년 대비 -25% 정도 낮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시아/유럽/미국 프로판 가격의 동반 강세도 나타나고 있으니 겨울철 얼마나 가격이 오를지 무척이나 궁금하다. 겨울철 프로판 강세는 PDH업체들의 가동률을 낮추며 프로필렌 강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관건은 어느 정도 오를 것인가 인데, NCC 입장에서는 조용히 지켜보며 즐기면 될 것 같다.

[그림1] 유럽/아시아/미국의 프로판 가격 추이



자료: 한화케미칼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17년 8월 11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른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영훈, 최선미)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른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이전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이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17년 6월 30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81.4%	18.6%	0.0%	100.0%